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래아로 갔습니다. 갈릴래아에서도 가난한 자나 눌린 자들에게로 갔습니다.

마르코 1장 14절에서 이 갈릴래아는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활동은 세례자 요한의 체포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갈릴래아는 세례자 요한을 체포한 장본인인 헤로데 안티파스의 지배영역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기서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정치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갈릴래아는 예수가 선택한 선택의 장인데,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민중의 현장입니다. 독일 교회는 이러한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선교의 장이 있습니까? 현장이 없는 생각은 오직 무책임한 학문적인 유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 신학을 본뜨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정치적 갈등의 현장에서 민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970년 10월 13일에 분신자살하면서 노동자의 참상을 세상에 폭로한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강단신학에서 안주하던 우리는 민중의 삶에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그의 분신자살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화사회의 그늘 밑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에 찬 노동자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성서를 새로 읽고 민중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민중신학이 형성됐습니다.

### 3. 반(反) 두 나라설

우리는 더 이상 이원적인 서구 신학의 사고의 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 영과 육, 인간사와 구속사의 이원적인 분리는

헬레니즘적인 사고의 유산이지 히브리 성서에는 낯선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주의는 일면 분석적 해석학의 전통을 밟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권력욕과 관심을 관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루터의 두 나라설은 종교귀족들의 타락한 권력욕을 방지하려는 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뒷받침하는 봉건주들과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두 나라설 전통의 희생자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치는 인간의 삶 전체 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제3세계에서 그러합니다.

두 나라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로 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마르 12, 17; 마태 22, 21; 루가 20, 25)라는 말과 바울로의 권력에 복종하라는 권고가 담긴 로마서 13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로 된 그것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의 가부를 묻은 데 대한 반응으로서 강조점은 후자, 즉 물음과 상관없는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라는 데 있다고 보며, 로마서 13장은 권리의 근원을 밝히고 그것의 오용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4.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연대

우리에게 문제 되는 것은 집권자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권력을 사유하고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자의 현실입니다. 독일 교회도 잔인한 독재자 밑에서 그같은 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두 나라설을 견지한다면 그것은 이 세계로부터의 도피이거나 현실에 대한 외면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